한국노총 일부 간부 횡령 의혹

광주 노사운영위 명단 허위 작성 수당 등 빼돌려

위원 6명 "회의 참석한 적 없고 사인 날조됐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현직 일부 간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 운영 주체인 운영위원회 명단의 일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의수당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지방노동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일정과 예·결산보고, 훈련생 모집 등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인원 수는 지난해와 2006년 각각 30명과 22명씩이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현직 간부 4명을 비롯, 공기업 본부장과 금융기관 간부, 광주지역 기업 관계자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 참가 땐 10만원 가량의 회의수당(교통비·식비 포함)을 받는다.

공개된 노사공동위원회 참여자 서명 확인서를 바탕으로 직접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 공기업 본부장 등 6명은 이 사업과 위원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서명도 누군가에 의해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3월3일 열린 것으로 작성된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석, 서명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모 공기업 본부장 이모씨는 "그런 회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사인도 직접 확인해 보니 내 것이 아니었다"며 "내가 운영위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의수당을 받겠느냐"고 말했다.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금융계인사 노모씨는 "노사공동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사인 한 적도 없고, 분명 누군가에 의해 날조된 것이다"며 "물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수당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노사공동훈련 사업 주무 관서인 광주지방노동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회의 일지와 회의 횟수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외면하는 등 폐쇄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운영위 회의 참석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이 1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주변에서 우예슬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슬양 추정 시신 일부 발견

시흥 군자천서 … 피의자 정씨 집에선 혈흔 찾아내

정씨 "교통사고로 죽였다"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은 18일 실종된 우예슬(9)양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절단된 시신 일부를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 일대에서 발견했다. 경찰이 이날 발견한 것은 어깨 부위부터 절단된 어린이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 몸통 등 3개 부위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낮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가 우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군자천 일대에서 정씨를 대동해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정씨가 유기장소로 지목한 군자천 일대에서 우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견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됐다. 우양과 함께 실종된 이혜진양 시신은 예비군 훈련 중 우연히 발견됐지만 우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정씨가 버렸다고 지목한 지점에서 찾아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정씨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머리카락은 썩는다, 호매실IC, 토막, 실종사건' 등의 단어를 정씨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하드디스크에는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 수만건이 저장돼 있어 정씨의 (성도착증 등) 성향을 짐작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정씨 집 화장실 벽에서 좁쌀 크기의 작은 혈흔을 찾아내 분석한 결과 사람의 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정씨는 현재까지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두 초등생을 죽였고 (사고 은폐를 위해) 시신은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쇠고랑 찬 '가짜 홀인원'

손으로 넣고 보험금 1,400만원 탄 40대 구속

하지도 않은 '홀인원'(Hole In One)을 한 것처럼 속여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18일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홀인원 보험금 등을 타낸 한모(4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3년 6월과 200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무안CC와 영암 아크로CC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S화재 등 2개의 보험사로부터 1천400만원의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라운딩 도중 손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방법으로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사에 신고한 뒤 골프장 대표 명의의 홀인원 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지난 2003년 3월20일 오후 5시30분께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일당 김모씨와 짜고 각각 일가족 4명을 태운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7개의 보험사로부터 1천67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

나원참 〈7461〉 김종두

진도서 밀입국 추정 선박 발견

밀입국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발견돼 해경과 경찰이 대규모 밀입국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37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여객선 선착장에서 '중국(中國) 강소성(江蘇省) 상주시(常州市)'로 표기되어 있는 1t급 선박을 주민 이모(58)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팽목항 인근 야산에서 중국산 구명조끼 7벌과 운동화 3켤레를 발견했다. 경찰은 밀입국자들이 선박을 이용해 팽목항으로 들어온 뒤 인근 야산을 통해 전남 내륙으로 도주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해경이 밀입국 추정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하지 못하고 주민 신고로 뒤늦게 발견함에 따라 해상치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일에도 완도에서 발생한 전복 절도 사건 당시에도 군 당국의 연락을 받고서야 절도 의심 선박 출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샤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시신 없는 살인 혐의는 무죄"

대법원 판결

정황상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 감금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 및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 28일 동거녀 A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언니 B씨를 대전시 유성구 방동저수지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행적에 비춰 B씨가 사망한 상태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B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젠틀맨비뇨기과의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크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전화 (062)233-5119

결별 요구 동거녀 감금·폭행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8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감금·폭행한 김모(36·경북 영덕군)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2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동거녀 이모(34)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나 1년8개월 동안 사귀어 온 이씨가 최근 자녀 양육 문제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재결합 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